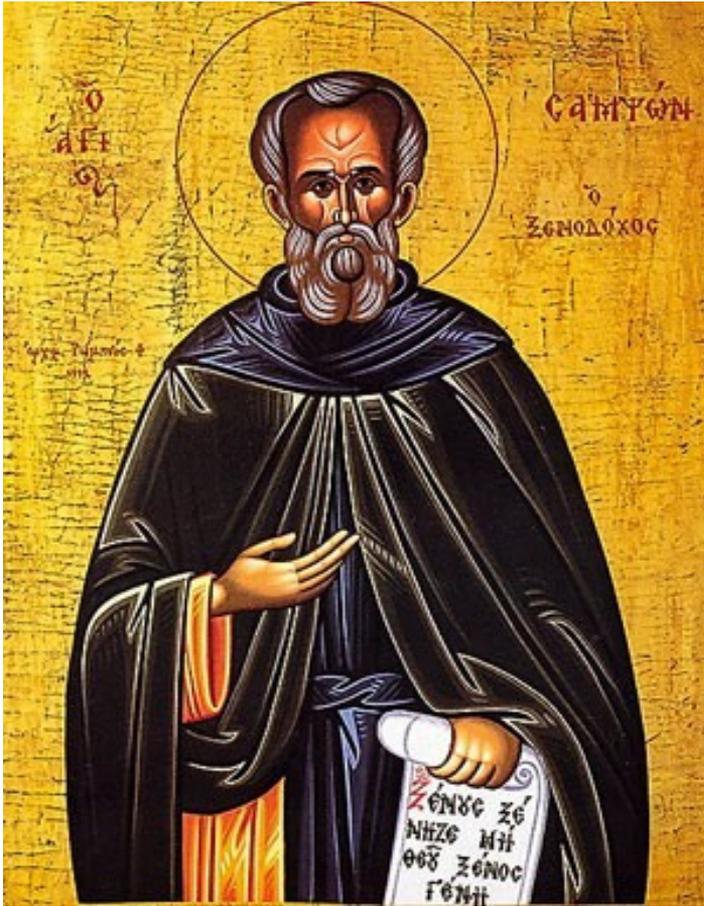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삼손 수사

마태오 제 2주일

성 율리아노스 순교자

제 1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로마서 2:10~16 / 봉독서 124
- 복음경 : 마태오 4:18~23 / 108, B 3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삼손 수사

하느님의 성인들의 삶과 역사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월 27일 축일로 기념하는 삼손 성인이 바로 자신의 재산과 학식과 삶을 다하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돌봐주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들과 자선단체에는 삼손 성인의 성화가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단순히 사회적 돌봄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통한 자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회적 돌봄에 자선이 없다면 그것은 세속적 활동이나 정치적 사리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한자들과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돌봄은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자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전도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최초의 제자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으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 또한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직업이 어부였으나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갔다. 그 밖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두 그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미 그의 부르심에 따를 준비가 되어있었다. 하느님의 대한 믿음의 열정과 성서를 잘 알고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성서적인 예언을 듣고 있었던 터였으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따랐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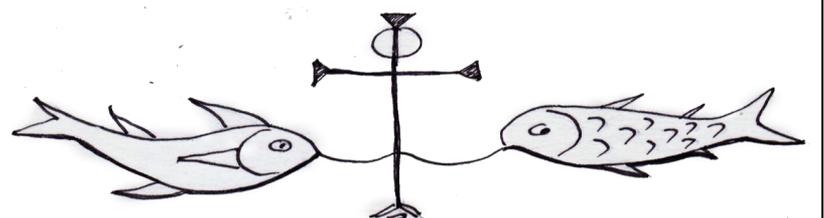
진정으로 누구를 따를 때에는 스스로가 상대방을 확신하고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전 인생을 책임져주는 분을 따를 때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그와 같음으로 인해서 따랐던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고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던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비판과 무시의 말씀으로 강요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로서 그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따를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만큼 그들을 인정해서 믿었고 그들은 그의 믿음에 의심 없이 따랐던 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준 결과이다. 만

약에 그들을 의심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면 오히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 하였을 것이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라”고 외치며 추종자를 모으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따르라”는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데, 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명령의 뜻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그릇된 지도자들은 자발적 따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물질적, 정신적 압박을 동원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강제 또는 반 강제적으로 자신을 따르게끔 강요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과대포장해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저평가해가며 무시하고 스스로 시대적 영웅인척 착각과 망상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자가 그러하며 종교적으로는 신격화된 교주의 형태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셨고 상대방의 감춰진 영적 상처를 어루만져주시며 인정해주셨다. 말로만 자신을 높이시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따르도록 겸손의 덕을 보이셨고 희생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줄 영적인 비타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방이나 모략을 겸손하게 견뎌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에 이르고,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우리르며 경탄하게 된다.

- 시리아인 이삭 성인(7세기)

우리에게 영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가까운 친구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하도록 하자. 그리고 덕을 기르는 사람을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자. 어리석고 겉만 화려한 친구는 불행의 원인이지만, 반면에 신중하고 속이 깊은 친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의 샘이다. 경솔하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 이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만다. 성미가 고약하고 심술궂으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야수와 함께 사는 편이 더 낫다.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는 친구와 함께 하느니 독수리나 콘도르(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걸핏하면 싸우려 들거나 남과 언쟁하길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느니 차라리 살인자와 친구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사자 우리 속에 있는 다니엘

- 시리아인 이삭 성인

- ☞ 다른 이의 말을 차분히 경청하십시오.
- ☞ 즉시 용서하십시오.
- ☞ 당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한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 유혹에 귀 기울이며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 콘스탄틴 스트라티고벨로스 신부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코로나19에 대해 더욱 주의합니다.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주 신자들에게도 공지하여 성찬예배를 실시간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신자분들에게 공지한 지침을 성당과 각 가정에서 잘 지키면서,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매일 밤 10시 기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6월 14일 주일에 성찬예배와 함께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슬라브교인 에카테리나 김 유아와 따띠안나 이, 이리니, 페클라 교우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올바른 정교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 성당 정원 조성.

올해도 성당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새로운 꽃들을 구입하여 심었습니다. 함께 봉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예식



6월 24일(수)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